

'빛의 구렁텅이'에서 희망 되찾다'

행복의경제학 국제회의의 전주 개막

부실채권 소각행사로
총 61명의 시민들이
채권추심으로부터 벗어나

종교단체가 후원금을 내어 사들인 부실채권을 소각하면서 전주 시민들이 빛의 구렁텅이에서 삶의 희망을 되찾게 됐다. 전주시는 8일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전주시의회 박병술 의장 등이 참석한 '2018 행복의경제학 국제회의의 전주' 개막

행사에서 부실채권 소각행사를 가졌다. 이날 소각행사에서는 시가 종교계 등에서 후원한 총 9억5000만원의 채권(원금 3억5,000만원, 이자 5억5000만원) 상당의 부실채권을 소각했다. 소각된 채권은 전북은행이 보유한 신용채권 중 연체기간이 5년 이상·대출금액 1,000만원 미만인 부실채권으로 총 61명의 시민이 빛의 굴레와 채권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날 소각행사에 앞서 김승수 전주

시장은 국제회의의 특별강연을 통해 지난 2016년 개소 이후 금융과 복지의 통합적 지원을 통해 서민금융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온 전주 시 금융복지상담소의 역할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시는 올해 행복의경제학 국제회의의 개막식에서 악성 빚 독촉에 시달리는 이웃을 위한 부실채권을 소각하는 행사가 진행되면서, 모든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시가 매년 개최하고 있는 행복의경제학 국제회의의 가치가 시민들에게 더 깊이 있게 전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시 사회경제적지원단 관계자는 "시민들을 지나친 추심의 압박과 경

제적 공핍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종교단체와 시민단체, 지역 금융권이 함께 힘을 합쳐 마련한 이번 부실채권 소각행사가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모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행복의경제학의 가치가 시민들에게 더 깊이 있게 전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8일과 9일 이틀간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진행되는 '2018 행복의경제학 국제회의의 전주' 국제대회에는 해외 연사들과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회적경제 △로컬푸드 △지역기반 사회적 금융 등 3개 세션의 워킹숍이 진행된다. /송효철 기자

최규호 전 교육감 구속영장 청구

검찰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대체적으로 인정 자료 분석 중"

전주지검은 8일 골프장 인허가·확장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3억원을 받아 행진 협회(특정경제가중처벌대상 뇌물)로 최규호(71) 전 전북도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김제 스페셜스 골프장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3차례에 걸쳐 총 3억원을 받아 행진 협회를 받고 있다. 그는 김제 스페셜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소유였던 자영고 부지를 골프장 측이 매입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브로커 역할을 한 전북 지역 교수 2명으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뒤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이후 최 전 교육감의 변호인으로 부터 9월 12일 출두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지만, 최 전 교육감은 검찰에 출두하지 않은 것은 물론 변호인과 연락마저 끊고 자취를 감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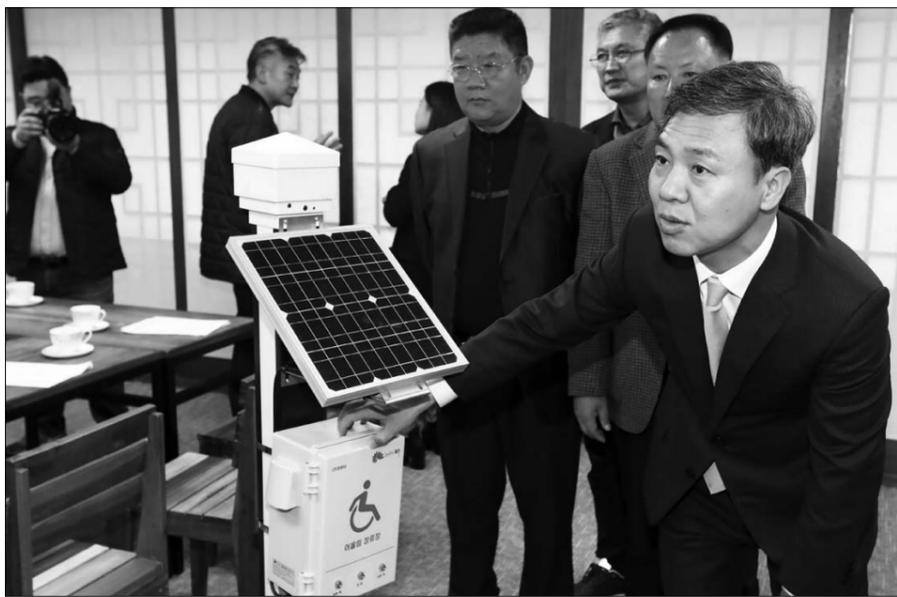
최 전 교육감은 지난 6일 오후 7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식당에서 도주 8년여 만에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붙잡혔다. 검찰은 최 전 교육감이 2013년부터 인천에서 생활한 것으로 파악했다. 최 전 교육감은 검거 당시 제3자 명의로 된 인천 동춘동의 한 24평형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그는 또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도피 기간 동안 대표폰을 수시로 바꿔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 전 교육감의 도피 행적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전 교육감이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인정했다"면서 "전날 인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유의미한 자료들을 다수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스마트 기기로 버스 승·하차를 편리하게

전주시, 디바이스 개발
협약 · 실증 서비스 시연

장애인 등 교통약자 대상

스마트 기기가 장애인과 임산부,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버스 탑승과 하차를 돕기 위해 서비스를 시작한다. 전주시는 8일 전주시청에서 '교통약자이동편의 버스 승·하차 지원 디바이스 개발 업무협약 및 실증 서비스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버스 승·하차 지원 디바이스는 교통약자에게 셔틀버스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셔틀버스에 승강장에 대기 중인 교통약자를 발견하지 못해 그냥 지나쳐가는 일이 없도록 버스대기자 정보가 전달되는 것이 핵심이다.



8일 전주시청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버스 승·하차 지원 디바이스 개발 업무협약 및 실증 서비스 시연회'가 열리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버스 승·하차 지원 디바이스를 살펴보고 있다.

시는 본격적인 서비스 시행을 위해 교통약자 전용 셔틀버스가 운행되는 3개 노선, 21개 정류장에 디바이스 설치를 완료했다. 이 디바이스를 통해 교통약자들은 실시간으로 셔틀버스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정류장에 설치된 디바이스에서 교통약자를 인식하면 음성과 LED 등을 통해 셔틀버스 운행정보 등을 안내하게 된다. 동시에, 버스에 설치된 디바이스를 통해 교통약자 대기정보가 운전자에게 전달된다. 시가 이처럼 교통약자를 위한 디바이스 개발에 나서게 된 것은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증진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는 이번 디바이스 개발 및 서비스 시행을 통해 그간 실시간행정정보 서비스가 구축되지 않아 불편을 겪었던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가 개선되고, 교통약자 셔틀버스를 이용자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연회에 앞서 교통약자(시각, 청각, 지체), 복지환경국장, 생활복지과장, 담당자 등 관계자 10여명은 서비스 실행화 단계의 문제점을 최소화 하기 위해 셔틀버스를 탑승해 보고 이용자 입장에서 불편 및 보완 사항을 파악, 점검하기도 하였다. 시는 향후 교통약자이동편의 버스 승·하차 지원 디바이스를 전주시교

통정보센터와 전주시내버스 등과 연계, 노인 안심 귀가 기능 등 활용 방안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시내버스와 교통약자 셔틀버스, 전국으로 운행되는 장애인콜택시 등 대중교통은 교통약자와 시민들의 이동권이자 생존권이다"라며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은 모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하는 만큼,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교통복지 정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와 디바이스 개발 참여업체인 (주)리퍼터는 오는 20일에는 서울 코엑스(COEX)에서 열리는 '2018 ICT 스마트 디바이스 페어 전시'에 참가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버스 승·하차 지원 디바이스를 전시하고 모의 시연하는 등 전국에 소개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외상값 갚아'...손님 컨테이너에 가둔 술집 주인 검거

외상값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님을 컨테이너에 감금해 협박한 술집 주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군산경찰서는 8일 특수감금 등 혐의로 술집 주인 우모(36)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우씨 등은 전날 오후 7시40분께 군산시 산북동의 한 술집 인근 컨테이너에

손님 A(29)씨를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씨는 A씨가 한 달 전 술을 마시고 자살하지 않은 50여만원을 받기 위해 컨테이너와 종업원을 대동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우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상값을 주지 않아 그랬다"고 말했다. /뉴시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책'

전주시-시의회, 해외동포에게 사랑이 책 보내기 캠페인
2015년 이후 출판된 종류 무관 도서 시의회 등에 기증

전주시의회와 전주시가 해외동포들에게 책보내기 운동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8일 시에 따르면, 전주시의회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 운동은 해외 동포들에게 모국의 사랑을 일깨우고 우리문화의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시의원들과 시립도서관이 공동으로 책을 모으게 된다. 사랑의 책 보내기 캠페인은 이달 말까지이며 각 가정에 소장하고 있는 2015년 이후 출판된 어떤 종류의 책이든 전주시의회나

가까운 11개 시립도서관에 기증하면 된다. 이에 대해,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은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해외 각국에 거주하는 750만 동포들에게 한민족의 정체성과 우리 문화의 자긍심 키워 줄 수 있는 기회"라며 "전주시의회 의원과 전주시 산하 전 직원 그리고 전주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캠페인을 통해 기증된 도서는 총괄 취합 후 (사)해외동포책보내기운동협의회에 재 기증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